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글로벌문화산업학과	이름	박XX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오사카
파견대학	Osaka Gakuin University	파견기간	2019.08.21~2020.08.01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오사카 가쿠인 대학은 오사카 위쪽인 스이타 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가 언덕이 많다면, 오사카 가쿠인 대학은 평지로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신설 건물이 아니면 그렇듯, 시설은 마냥 좋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유학을 가게 되면 학부수업을 듣지 않는 이상, 국제센터에서 거의 모든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년 내내 학부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의 전체적인 평은, 안좋습니다.
2018-2학기 수업	저는 유학생 수업은 물론, 학부수업을 병행했습니다. 수업은 목요일 1시간을 제외하곤 전부 문법이었습니다. 제 반은 유학생들 앞에서 PT를 만들어 일본어로 발표했습니다. 수업은 9:00~11:10, 총 130분 수업입니다.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 수업 내용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상급자 반의 경우, 조금 어려운 단어와 문법들도 나옵니다. 과제는 매일매일 나오며, 클래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택수업도 진행합니다. 다른 유학생들과 친해지고 싶다면 수강하세요. ***학부수업 평가 기준-> S / A / B / C / D / F, (D와 F는 학점 못받습니다.)*** **JSL 日本語レベル 4**（上級）-매 학기마다 선생님들이 다르며, 여러분들이 유학가면 레벨테스트 후 정해지는 클래스입니다. 문법 포함 수업입니다. **日本事情**-후쿠이라는 선생님이 진행하십니다. 과제 많습니다. (PT有) **初中級向け会話クラス**- 쉽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수강하세요. **国際マーケティング論**-130명정도가 한꺼번에 듣습니다. 어렵습니다. **韓国の社会と文化**-30명 정도가 듣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라고 일반 시험이 아닌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공평하지 않았지만, A를 받았습니다. **現代社会とキャリア形成**-썩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情報経済論**-150명 정도가 듣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資源経済論**-150명 정도가 듣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2019-1학기 수업	**JSL　日本語レベル５（上級）**-상기 내용과 같습니다. **現代産業事情**-현대 트렌트 산업 관련 강의가 주입니다. **情報メディア論**-에세이 정말 많습니다. 안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現代課題**-교수님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日本経済史**-이건 절대 들으면 안됩니다. 에세이 15000자 작성했습니다. **国際事情Ⅰ**-선제적으로 들어야하는 수업입니다. 개괄적 내용입니다. **国際事情Ⅱ**심화수업입니다. 사회적 이슈들+다양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말하는 게 늦었습니다. 일본어에 자신이 없으면, 학부수업은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인원 중에 유학생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유학생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허세가 가득 찬 바보였고, 외로이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유학생들 중에서 가장 학부수업을 많이 듣는 유학생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꼭 들어야 한다면, 커리큘럼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강의에 해당하는 학부 일본인과 친해져야 합니다. 이미 들어본 수업이거나, 그 강의를 듣는 친구를 소개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지 못한 경우였고, 혼자서 일본인들과 경쟁했습니다. 힘내세요!
프로그램 운영	국제센터에서 '직접'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적인 퀄리티는 높지 않습니다. 다른 곳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 그나마 괜찮은 수준에 속합니다. 국제센터 직원이 일본인 버디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자기 자신이 당한다면 기분이 좀 좋지 않을 정도입니다. 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에 나눠주는 종이로 알 수 있으며, 꽤나 다양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국제센터에 가서 자신의 학번,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모든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다른 프로그램들은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다른 유학생들과 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일본 여름과 한국 여름의 차이점은 습한 정도에 따릅니다. 일본 공항에 도착해서 잠깐 셔틀 타는 그 사이에, 숨이 턱 막힘을 느꼈습니다. 장난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햇살이 쨍쨍해서 많이 살이 타기도 합니다. 일본은 그냥 습합니다. 아-주 습합니다. 게다가 필리핀마냥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마르기도 전에 또 비가 옵니다.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대신,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 겨울이다.'할 날씨인데, 바람 불면 꽤나 춥습니다. 롱패딩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귀국 때 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날씨는 한국과 별반 다른 점이 없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은 안전 그 자체입니다. 그냥 부딪히면 스미마셍 하고 지나가면 되고, 오사카 가쿠인 대학, 학교에서 제공하는 숙소는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걸어 다니다 봉변 당하는 것은 아래쪽 정말 질 나쁜 놈들을 만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한국만큼 안전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기타( )* 오사카 가쿠인 대학은 따로 기숙사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리야마'라는 부동산 업자와 계약을 해서 기숙사의 개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아리야마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생활합니다. 과거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저는 제 알아서 살 집을 찾았습니다. 매달 46,700엔+전기+가스비 해서 약 5만엔 정도 매달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는 여러분, 저처럼 직접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곳에서 계약하세요. 모든 짐을 치워야 하며, 가전, 가구 등을 처리해야 하고, 식기 등을 구매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곳은 다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 )* 친해진 유학생들과 학교 식당, 외부 식당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학교 식당보다는 외부 식당이 꽤 맛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JR키시베, 한큐 쇼자쿠 역입니다. JR역에는 음식점이 꽤 있으나, 좀 멉니다. 선택수업을 듣는 경우에 쇼자쿠 역을 통해 다른 곳으로 가서 먹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대부분 편의점 밥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3일정도는 편의점 밥 만으로도 생활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짐에 따라 저는 3월부터 장보기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외출하지 않았고, 자연스레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	통학은 전부 전철을 이용했습니다. 따로 집을 구한지라 정기권 값이 좀 있었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분의 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쇼자쿠 역과 한 정거장 떨어진 아이카와에서 거주하게 될텐데, 정기권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아주 싸게 통학할 수 있습니다. 시내 교통은 대부분 전철이며, 다른 지역에 이동하기 위해 오사카 역에 가는 경우에 한해 가끔씩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한큐 선을 이용하면 우메다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으로 이동할 수는 있으나, 웬만하면 난바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나라 같은 곳은 나라를 통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큐선을 이용하면 교토 카와라마치 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1시간 걸립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44,770엔	편도 티켓 두번 구매. (23,650+21,120)
Fees	-	-
보험료	자매대학 상해보험 1년치-4,800엔	-
숙소	673,600엔	초기비용-113600엔, 매달*5만엔(월세46700엔+전기, 가스)
식비	385,000엔(=35,000*11)	매달 35,000엔으로 계산
교통비	22,680엔(=7560*3)	정기권(3개월 3회 구매)
책값	2000엔	교재비
기타1	42,120엔(=3510*12)	핸드폰비(매달 지출)
기타2	22000엔(=2000*11)	의료보험(매달 지출)
기타3	8900엔	자전거
합계	1,195,870엔	-

5. 출국 전 준비사항

오리엔테이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초기 자금은 얼마나 있는지, 지원은 얼마나 가능한지, 아르바이트는 할 것인지, 학부수업을 수강할 예정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1년을 생활할지 정해 두어야합니다.

국제센터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와주지는 않지만, 최대한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최대한 국제센터를 이용하세요. 모두들 친절하십니다.

영어권 유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어를 그다지 잘하지 않는 유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들면서 놀고 싶다면 같이 놀러 다니면 됩니다.

출석률에 대한 성적 부여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이제는 퍼센트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횟수(예: 3번)로 따져 출석률을 충족하지 못할 시, F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국제센터 측에서 오리엔테이션에 말해줄 겁니다.

과제는 매일매일 나옵니다. 선택 수업 혹은 학부 수업 시작 전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와도 과제를 할 시간은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옹기종기 모여 과제를 하다 보면 더 친해질 것입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인성 문제입니다. 예로, 인종차별을 하던 독일 유학생들은 해당 학생의 학교에 보내는 보고서에 그대로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교환학생에 합격해서 정보를 찾고자 이 보고서를 보고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복잡한 심정입니다. 1년간의 유학은 꿈만 같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뜨면 다시 1년 전 유학 첫날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힘든 부분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저를 제외한 대부분은 매우 가까이 살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일을 너무 벌려서 많은 추억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총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교환학생으로서 가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일본인들과 친해지고, 더 많은 유학생들과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일본인들과 친해지면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가게는 물론, 술자리 같은 것들도 초대받으면 또다른 일본인들과 친해지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더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용해서 많은 일본인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밥을 사줘야 하지만, 우리가 일본으로 가면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만드세요! 코로나가 안정되고, 글로벌 빌리지에 유학생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글빌에 입사하세요!

일본의 행정처리 속도는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느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청 개념인 구약소에 가서 어떤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면, 개관시간에 맞춰 가거나 3시간은 잡고 가셔야 합니다. 한국은 컴퓨터 파일(예: 공문 등)이라면 일본은 종이입니다. '종이'입니다. 아주 느립니다. 물론? 일본 학교도 종이를 씁니다. 종이 뭉텅이 받습니다.

모르면, 고민하기 보다 물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어도 좋아하는데,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고, 일본어로 일본인과 대화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먹힐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전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1시간정도 점장님이랑 얘기하면서 퇴근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보다는 일본어를 많이 말하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응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귀국하면 아쉬움을 느낄 것입니다.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려 하지 마세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직접 집을 찾으려 고생하지 마세요. 좀 더 남을 이용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숙소 시설이 너무 좋지 않아서 바꿔 달라고 하면 바꿔 줄지도 모릅니다. 샴푸, 바디워시, 칫솔 같은, 일회성 제품이 아닌 이상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계약 다 취소하고 학교와 계약한 부동산업자 소유 건물로 들어갈 겁니다. 매트리스, 테이블, 행거를 포함해서 가구,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 용품을 다 사비로 사고 귀국 준비할 때 제 돈 주고 다 버렸습니다. 일본은 소다이고미 라고 해서 일정 크기 이상 큰 물건들은 소다이고미 담당하는 곳에 전화해서 버리는 물건, 크기를 말하고 버리는 날짜, 버리는 장소, 돈 내는 곳을 알아야합니다. 딱 봐도 귀찮아보이죠? 원래는 판매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매 돈 다냈습니다. 그냥 아리야마한테 집 빌리세요.

앞으로 일본으로 유학 가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힘내세요! 많이 놀다 오세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table>
<tr><td> </td><td></td><td> </td></tr>
<tr><td>집 베란다 좌측 전경</td><td></td><td>2019-2 유학생 단체사진</td></tr>
<tr><td> </td><td></td><td> </td></tr>
<tr><td>아르바이트 할 때 친구가 찍어준 사진</td><td></td><td>유학생 스피치 대회</td></tr>
<tr><td> </td><td></td><td> </td></tr>
<tr><td>친해진 유학생들이랑 밥 먹으러 갔을 때</td><td></td><td>친해진 일본인 친구 집에서 놀았을 때</td></tr>
</table>